

[종합·해설]



정월 대보름 남구 칠석 고싸움 놀이

제27회 광주 칠석고싸움 놀이 축제가 9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전수관에서 열렸다. 이날 칠석고싸움 놀이는 보존회 회원 220여명과 5개 마을 주민 40여명이 선보였다.

고싸움놀이는 고를 면 '졸래장(고 위에 올라 경기를 지휘하는 사람)'이 돌진해 상대방의 고를 찍어눌러 땅에 뛰게 하는 경기로 먼저 땅에 닿는 편이 진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 광주 어떤 사업 포함됐나

車부품 단지, 270만㎡ 1조2천억 투입

정부가 '5+2 광역권 사업'에 광주시가 반영을 요구해온 미래 성장산업을 대폭 수용키로 합의 따라 광주가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광주 R&D특구 지정, 클린디젤자동차 산업을 축으로 한 첨단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자동차 부품·광소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9일 5+2 광역경제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 추진된다면 기존 광산업을 축으로 광주시가 미래 첨단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R&D특구는 광주시가 유치·지정을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투자유발·고용창출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현안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광주시가 올해부터 본격 육성기로 한 8천억원 규모의 클린디젤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고 광주의

R&D 특구, 국제비즈니스 파크 등 조성

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내년 착공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들여 광산구 진곡산단, 고룡동 일원 82만 평에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핵심 사업으로 클린 디젤자동차 산업을 배치할 방침이다. 클린디젤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장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첨단기술 지원센터 ▲자동차 충돌실험실 등을 비롯한 R&D 인프라가 구축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 한편 지역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광주시를 특화기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광주 R&D특구는 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지정을 추진해온 속원사업으로

사업비만도 4천740억원 달한다. 이 사업은 광주첨단과학산업, 진곡산단, 수완지구 미개발지역, 장성그린밸트, 하남 산단 등 모두 1천152만 평을 연구개발(R&D) 특구로 개발, 국제비즈니스 파크와 칼리지 폴리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내륙지역 개발을 위해 견립될 R&D특구는 대구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광산업 등 여건이 잘 갖춰진 광주를 우선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미래산업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또 정부로부터 R&D특구에 포함될 예정인 진곡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새로 추가된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에는 국비 1천25억원이 투입돼 LED(발광다이오드) 및

해양조선기자재산업이 육성되며 휴먼친화형 신용차 개발을 하게 된다.

광주·나주·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는 2010년 착공해 2019년 완공되는데 1조7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활철도가 건설되면 광주 인근 나주와 장성, 담양, 화순 등이 연결돼 광역교통망이 형성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광역철도는 광주 지하철 1호선을 광주~화순(12km), 광주~나주(22km)까지 2개 구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광주시는 노후한 광주 송암공단 등의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 협력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청별관 해법찾기 막판 진통

공대위, 내부 의견 조율 내일중 최종안 제시…극적 타협 촉각

8일부터 공사지연금

옛 전남도청 별관 해체 논란으로 빚어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중단사태에 대한 해법찾기가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별관의 철거를 반대해온 '옛 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가 오는 11일께 별관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대위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시민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 문제가 극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 5월 관련 단체들은 현재 각 단체별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태해결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점도 공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측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8일부터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지연대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사지연대금은 1일 기준으로 공사장지에 따른 비용이 800여만원, 현장관리비 200만원 등 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난해 11월10일 공사 일정지를 건설업체에 통보했으며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초과일수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공사계약금 액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연대금을 줘야 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부담금은 이미 추진단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 왔지만 공사 중단 이후 두달 동안 도청 별관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5·18 공동대책위원회

나 해체를 주장하는 추진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러나 공대위가 지난 6일 중재자인 박주선 의원에게 제시한 일부 철거안을 고수할 경우 사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분의 1 존치, '3분의 2 존치' 등 건물 일부를 보존하는 방안을 협상 수입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통해 제시했지만 추진단이 봉고 위험 등 기술적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측 모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조만간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공대위 관계자는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서 결론이 벌어져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광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12일 제정

다문화가족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진선기(민주·북구1) 의원 등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광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 정보 제공과 직업 훈련, 가족상담,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 보육·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를 파악해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정목기자 jwpark@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계보청기 전문점

1588-5456 771-0100

1521-5555 951-0100